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5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12:1-9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50장(새 35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5번(새 7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은 지금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자연재해 등으로 혼돈을 겪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더 치달고 있음을 볼 때, 절망과 낙담이 아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깨어있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세상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존재로 전하는 사랑의 증인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마태복음 15:1-11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봉 헌(offering) 3장(새 5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490장(새 433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시온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3.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 미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작골 신경통), 신성화집사님 어머니,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니, 임현정사모님 어머니

<말씀묵상> 마태복음 15:1-11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이 이르셨도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도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1-6절)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인간적인 전통은 없습니까?
2.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까?(7-9절) 나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신앙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형식과 가식이 되고 나아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 듯한 신자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세련된 종교인으로 사는 것만큼 위험하고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제일 심각한 증상은 자신의 신앙이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로 위해 자기 의가 한층 더해져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차 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이기에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의 상태를 꿰뚫고 계셨기에 가차 없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이 한마디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행합니다.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떠났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신앙의 결말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에 빠진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여 그분이 떠나시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